

09

2011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미술시대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35

**KIM HEE-KYUNG**

Ci Kim, Lim Ok-Sang

Haegue Yang, Yoon Young-Seok



9 77 1975 862603  
ISSN 1975-8626

# Welcome to My World

김인영, 김진희가 참여한 'Welcome to My World'전이 2011년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갤러리 엠(02-544-8145)에서 전시된다. 이번 'Welcome to My World'전은 갤러리 엠과 김인선 객원 큐레이터와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인영의 평면작업과 김진희의 조형작업을 통해 '추상성'에 대한 견해를 다각도로 고찰 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김인영작 Fragments 1, 3, 4 · 70×70cm (each) · Acrylic, Enamel Paint on Canvas · 2010

김인영의 작품은 화면 전체가 에나멜 페인트라는 재료 자체를 우선적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추상적인 형태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산수화의 실루엣을 연상하게 한다. 다양한 색감이 실제적인 묘사를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작가에

게 있어서는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겨져 있는 풍경을 '묘사' 한 것이다. 작가가 밝히듯이 이는 시각적으로 물질성이 강하면서도 그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 자체는 무너져 내리듯 약하고 불안정한 이미지이다.

▼ 김인영작 Waterfall · 40×100cm · Acrylic, Enamel Paint on Canvas · 2010





김진희는 선천적으로 눈 앞의 사물이 색점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 덕분에 타인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가 소재로 찾아낸 기계는 작가의 손에서 분해되어 새롭게 배열된 온갖 부품들의 집합은 작가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맞추어진다. 그리하여 탄생한 망점 모양의 각종 입체 작품들은 추상적 형태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작가에게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풍경의 레이어를 표현한 것이다.

추상과 구상간의 구분이 애매할 경우 한쪽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보는 이의 주관을 끌어들인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두 명의 작가



는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를 사용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에게는 구체화된 이미지로서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들 작가는 우리가 단순히 인식하는 눈 앞의 풍경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환기시켜준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규정된 기호인 언어적 설명뿐이며, 사실 시각적으로 제시된 대상이 똑같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추상은 여러 가지 정의로 정리되었지만, 일단 평소에 인식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난 이미지에 대해 우리는 '추상성'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여기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추상적이지만 작가들이 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제 풍경들이다. 구상과 추상 간의 괴리는 단순히 망막을 통한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김진희작 Dust2 (Detail Image)  
 ◀ 김진희작 Dust2 · 70×50×60cm · Phosphorbronze Wire, Short Wave Radio, Electronic Components · 2010  
 ▼◀▶ 김진희작 Colored dot-Filter 1 (Detail Image)  
 · 168×14×57cm · Electronic Components (Resistance) · 2011

